

부사의 호응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이를 수식하는 말이다. 부사 중에는 특정한 성분, 즉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이는 부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여간

예) 해외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다리를 다쳐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2. 결코

예)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지금의 실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3. 그다지

예) 남을 돕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4. 얼마나

예) 대학에 합격했다니,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좌절을 겪고 나서 성공을 거둘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5. 절대로

예) 지금의 이 실패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흘 안에 이 과제를 끝낼 수 없다.

이 외에 조사 밖에도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한다.

예) 친구밖에 없다./친구 밖에 모른다.

품사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누는데, 이를 '품사'라 한다.

한국어에서는 단어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구분된다.

1.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예) 하늘, 바다, 책상, 소설/ 서울, 베이징, 뉴욕, 김수현, 존

2.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예) 나, 너, 우리, 누구/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저기, 어디

3.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예) 하나, 둘, 셋- 사과 하나만 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 이 아이가 우리 집 둘째입니다.

➤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라고 한다.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하여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성분이 된다.

4.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예) 자다, 먹다, 공부하다, 웃다, 울다

5.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예) 예쁘다, 크다, 작다, 아프다, 슬프다

➤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의 어간에는 어미가
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수사와 수 관형사

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나 수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예) 사과 하나만 주세요. (수사)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어간

동사나 형용사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은 부분. 동사나 형용사는 어미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한다.

예) `먹는다/먹었다/먹고`에서 `먹`

6.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말.

예) 순 살코기, 전 국민, 그 친구, 저 사람

7.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구 뜻을 분명하게 하는 말.

예) 매우 예쁘다, / 아주 힘들다. / 점점 추워진다.

❖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이라고 한다. '수식언'은 체언이나 용언 앞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8. 감탄사: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용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

예) 아, 그렇구나./ 아이고, 죽겠다.

❖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하여 `독립언`이라고 한다.

9. 조사: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말.

예) 저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하여 `관계언`이라고 한다.

-관형사형과 관형사 관형사형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형태가 변한다.

예) 의견이 다른 친구

(의견이 다르다)

관형사는 관형사형과 달리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예) 다른 (또) 생각 하지 말고 공부만 해.